종돈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말레이시아 현지 세미나 개최

▲ 말레이시아 현지 세미나 한국 대표단

지난 2006년 12월 11~15일(3박 5일)까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종축개량협회 수출협의회 회원 등은 종돈 시장 개척을 위한 세미나 개최, 종돈장 방문 및 양 국가간의 검역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방문단은 한국종돈수출협의회 회장인 이병모 회장, 이경록 부회장, 이석주 부회장(한국종축개량협회), 장성훈 이사(금보육종), 박한용 이사(설천농장), 임성주 이사(구시월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허창열 사무관, 가축육종전문가 송 훈 박사, 종돈개량부 장현기 부장, 백기찬 직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종돈수출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다. 12월 11일 저녁 5시에 도착, 현지 스케줄 담당자인 태순기업 유한공사 Alan NG가 한국 대표단의 일정에 관해 말레이시아 현지 세미나 개최, 농림부 관계자들과의 만남 및 SPF 농장 방문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백 기 찬**

말레이시아 일반현황

인구는 2천 5백만이고 이중 말레이계 60%, 중국계 25%, 인도계 등이 15%이며 이중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 소비층은 중국계 25%가 이루고 있다. 국토 면적은 329,847㎢ 인데 이것은 한반도의 1.5배 정도 되는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기후는 열대 우림형 기후이고 종교는 이슬람교이며 화폐단위는 링깃(Ringgit, RM)이며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47.2%), 제조업(31.5%), 농업(9.5%), 광업(12.6%), 건설업(3.3%)으로 나누어진다. 말레이시아 국기를 보면 초승달과 별은 이슬람교를 상징, 13주와 연방정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195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였고 1인당 GNP가 5,040불이다. 한국과의 국교 수립은 1960년 2월에 이루어져 많은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교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말레이시아 양돈 현황

양돈 산업의 배경으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 국가로서 양돈 산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2,500만 인구의 약 25%가 중국 복건성(Fuzhou) 이남에서 20세기 초반에 이주한 중국계 이민자로서 부와 경제력를 쥐고 있는 자체 돈육 소비욕구와 생산활동을 무조건적 제한할 수 없어 법적으로는 양돈에 관한 모든 활동을 금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단속하지 않는 이중적인 정책을 지난 20년간 취해왔다. 1980년대는 싱가포르로 연간 250만두를 수출하였지만 1990년에 Nipah Virus에 의한 질병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었고, 회교세력의 반발과 민족 간 대립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 위험 지역 내 모든 양돈장을 폐쇄하여 양돈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현재는 모돈이 100,000두 정도이고 향후 정책 방향은 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방역정책을 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분뇨의 무단투기 방지 및 처리시설 도입, 폐쇄돈사시설의 도입 및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의 유수 업체나 정부간 협력을 통하여 자국 내 선진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사실상 양돈 산업허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 세미나 개최

세미나 장소는 말레이시아 현지 양돈인들이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수도인 콸라룸푸르시에 중심부에 위치한 Grand Seasons 호텔 2층에 유치하였다. 양돈인들은 콸라룸푸르시에서 약 3시간정도 떨어진 5개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미리 스케줄 담당자가 버스 5대를 빌려서 세미나 장소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세미나 참석 예상인원이 80~90명 정도였지만 100명이 훨씬 넘게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세미나 발표에 앞서 한국종돈수출협의회 이병모 회장이 말레이시아 현지 양돈인들에게 축사를 하였으며, 세미나 발표 주제는 세 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 요청한 한국의 종돈개량시스템(송 훈 박사), 한국의 가축방역 및 동물검역체계(국립수의과학검역원 허창열)과 한국의 종돈 및 양돈 현황(한국종축개량협회 장현기 부장) 등의 순서대로 발표하였다.

첫 번째로 한국 종돈개량시스템이라는 주제를

▲ 세미나 전경

▲ 세미나 후 양돈 지도자와 함께

발표한 송 훈 박사는 말레이시아 양돈인들에게 한국적인 종돈개량방법과 종돈의 우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발표 후에는 한국의 종돈 가격, 검정성적 및 구입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있었다. 두 번째로 한국 가축방역과 동물검역체계라는 주제를 발표한 허창열 사무관은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과 검역에 대하여 철저하게 시스템화가 되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긴급, 신속하게 대처 가능하고 수출, 수입에 대한 방역 및 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종돈 및 양돈 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종돈개량부 장현기 부장은 한국 종돈에 대해 등록, 검정, 심사에 대하여 데이터 수집 및 육종가 평가 방법에 설명하였고 한국 양돈 산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발표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1백여명의 현지 양돈농가들은 마지막 발표 때까지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 종돈의 앞선 유전능력과 강력한 국가방역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종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자리를 옮겨 점심 식사를 같이 하였는데 한국 종돈의 검정성적이나 가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양돈인들이 한국 종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일정을 만들어 브로슈어에 소개된 종돈수출협의회 종돈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여 추후에 말레이시아 수입 에이젼트와 한국종돈수출협의회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수출을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말레이시아 농림부 축산국장 및 부국장과의 만남

세미나 일정을 마친 후에 말레이시아 농림부를 방문하려 했으나, 가는 도중에 교통사정이 좋지 않아서 농림부 쪽에서 중간지점인 Hilton 호텔에서

▲ 농림부 수의국장, 부국장 면담

▲ 면담 후 기념 촬영

만나자는 제의를 하게 되어 아쉽게도 농림부를 직접 보진 못했다. 하지만 양 국가간의 검역협정에 대하여 책임자인 축산국장 Dr. Abd Aziz Bin Jamaluddin, 부국장 Dr. Vincent Ng In Hooi이 직접 한국 대표단을 만나 협의하였다. 말레이시아 축산국장인 Aziz는 "실무선에서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한국산 종돈 수입의 허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임을 강조하였고, 실무선의 협의 내용으로 말레이시아측은 수입종돈이 일부 소모성질병에 대해 임상증상이 없을 경우 '02년 수입중단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검역협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내 종돈업계는 현재 국내 위생수준과 방역체계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검역조건을 만족시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 말레이시아의 한국산 종돈수입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종돈을 수입할 경우에 현행 규정상의 주요 질병은 구제역, 콜레라, 오제스키, PRRS, 브루셀라 등이다. 한국 종돈장을 직접 방문하여 한

▲ 이병모 회장과 말레이시아 축산국장 Dr.Aziz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허창열 사무관과 축산국장

국의 검역 시스템과 우수 종돈장을 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으며 향후에 말레이시아에서 모돈 20,000두 규모의 양돈단지 신설에 한국의 투자 지원 요청 내용에 관하여 차관 등의 형태로 지원시 원리금 상환 보장(MOU 가능), 종돈 및 육종개량 기술, 분뇨처리 기술 등의 전수를 희망, 양국 합작으로 백신생산기술 제휴 및 생산 희망, 장기적으로는 타 분야로 기술교류 확대 등 양국가간의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말레이시아 SPF 농장 방문

셋째 날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대표적인 종돈장인 SPF Farm(Perak-Bidor)을 방문을 하였다. 모돈 규모가 600두 정도의 규모로 분만율 85%, 모돈 회전율 2.2%, GGP, GP, PS형태로 사육을 하고 있으며 사료급이에 관해서는 자돈의 경우는 무제한급

말레이시아 바이어들이 직접 구매하러 올 때 좀 더 체계적인 스케줄과 구매자가 원하는 종돈을 보여 주어야 하며 현지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검역관계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SPF농장 견학

▲ SPF농장 스톨사 전경

이, 성돈은 제한급이 형태인데 그 이유는 선호하는 형태가 근육질에 등지방을 얇게 하기 위해서 이며 종돈 수입국가는 미국의 왈도농장, 세다리지 농장, 덴마크 등이고 정액의 경우는 SGI사의 정액을 이용하여 종돈을 생산한다.

말레이시아 종돈 수출 가능성

말레이시아 양돈 농가들은 대부분 대만으로부터 종돈 및 기자재 등을 수입하였고 모든 기술을 전수 받았으며, 대만의 구제역 발생 이후 종돈은 미국, 영국, 덴마크에서 주로 수입을 하였다.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 선발 및 운송 시 15~20시간의 항공시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말레이시아에 종돈 및 양돈 기반시설 수출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종돈 운송 시 항공화물 운임이 일반화물의 200% 이상의 운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국 및 유럽지역보다 운임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물류비 부담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종돈 수출을 위해 접촉하고 있

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 한국 종돈 수출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므로 종돈 수출을 위한 국가적인 물류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에서 물류비가 지원된다면 종돈 수출에 경쟁력이 확보되고 부가적으로 육종기술, 동물약품, 기자재 등으로 수출 확대를 할 수 있으며 국내 종돈 개량 의욕 증대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 고급육 생산기반으로 돈육수출 여건을 확보하여 종돈 및 기자재 수출로 외화 획득이 가능하다. 현재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등지방이 얇고, 산육능력이 좋은 종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양돈업계 관계자는 "모돈수를 기준으로 한 돼지쿼터제가 실시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종돈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데다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 있은 상황"이라며 "따라서 현지 양돈농가들로서는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만큼 한국산 종돈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수출 전략으로는 수출용으로 따로 종돈 육종이 필요하고 이번에 세미나 및 여러 행사를 추진해준 태순기업 유한공사 대표인 Alan NG씨는 검역문제가 해결된다면 종돈 선발을 위해 바이어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향후 기대 효과

이번 말레이시아 현지 세미나 개최와 말레이시아 정부 및 바이어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어떤 종돈을 원하고 있는지, 한국종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말레이시아 바이어들이 직접 구매하러 올 때 좀 더 체계적인 스케줄과 구매자가 원하는 종돈을 보여 주어야 하며 현지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검역관계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지 매체에 한국종돈을 홍보할 수 있는 기사를 기고한다면 향후 한국의 종돈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참고자료> 2005년도 종돈 수출실적

(단위:두)

연번	농 장 명	성 명	종돈구분			수출국	수출일
			순종	F1	계		
1	금자축산	정종기	500		500	베트남	2월24일
2	가야육종	허정래	225		225	필리핀	10월22일
3	다비육종	윤희진		112	112	베트남	10월10일
계			725	112	837		

※ 2003년, 2004년 수출 실적 없음(질병발생으로 인하여 수출 중단)